

## 미혼 커플의 성인애착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 미 정<sup>†</sup>

조 영 주<sup>‡</sup>

서강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미혼 커플의 성인애착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성교제 중인 194쌍의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친밀관계 경험척도, 이성관계 만족척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척도를 포함하는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과 파트너의 성인애착과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는, 여자의 회피애착이 남자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둘째,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셋째, 남자와 여자의 불안애착이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여자의 불안애착이 여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자기 효과는 유의하였고, 남자의 불안애착이 여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남자의 회피애착이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자기 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여자의 회피애착이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는, 가설과는 달리, 부적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성인애착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였고, 연구의 제한점,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연구의 학술적 의의 및 커플 상담에의 시사점을 포함하였다.

주요어 : 성인애착, 관계 만족도, 역기능적 의사소통, 미혼 커플,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 본 논문은 김미정의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토대로 한 것임.

김미정은 현재 명봉의료재단 새마음병원에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조영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대우교수,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E-mail : youngju.chona@gmail.com

성인기에는 이성관계를 통하여 친밀감을 경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한 심리사회적 과업이다(Erikson, 2014). 우리나라 미혼 남녀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18세에서 49세 미혼 남자의 33.8%와 여자의 35.6%는 이성교제 중이며, 이성친구가 없는 미혼 남녀 중에서 남자의 64.9%와 여자의 56.6%는 이성 친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호, 2014). 성인기의 이성관계는 생활의 즐거움과 활력이 되며, 부모님이나 친구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고, 나아가서 이성관계를 통하여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한다(김나리, 2002; 안혜숙, 김인옥, 2000).

미혼 커플의 이성관계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성인애착은 상당히 많이 연구된 주제인데, 대체적으로 안정애착일 경우에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백상은, 설경옥, 2015; Feeney, 1999; Mikulincer & Shaver, 2007). 즉,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가 가까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가 되고, 새로운 도전과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할 때, 높은 수준의 관계 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인애착이 관계 만족을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이를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Mikulincer & Shaver, 2007). 성인애착은 정서적 유대감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을 포함하는 내적 과정이라면, 의사소통은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는 상호작용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애착이 의사소통을 매개하여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ikulincer와 Shaver(2007)은 성인애착과 관계 만족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의사소통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Johnson(2006)

은 정서중심 부부치료 이론에서, 충족되지 않은 애착관련 욕구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비난이나 철회와 같은 의사소통이 관계 불만족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련성은 이론적으로 또 상담 실제에서도 강조되지만, 경험적 연구는 제한적이며,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하다. 미혼 커플은 부부에 비해 거절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상대에게 긍정적으로 보이려고 하는데(Swan, de la Ronde, & Hixon, 1994), 이런 특성은 애착, 의사소통 및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역동적인 커플 관계의 연구는 커플 중 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커플을 하나의 단위로 연구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Bradbury & Karney, 2004). 관계는 상호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의 특성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특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계 만족은 두 사람의 변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 커플을 연구 단위로 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성인애착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사용하여,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에 더하여, 자신의 성인애착이 상대방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자신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혼합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선행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고 정교화 하고자 하였다.

Bowlby(1982)가 제안한 애착 이론은 성인기의 낭만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초기애착은 유아가 자신을 돌봐주는 양육자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을 말하며(Ainsworth, Blehar, & Waters, 1978;

Bowlby, 1982), 성인애착은 낭만적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해 갖는 정서적 유대감을 말한다(Hazan & Shaver, 1987). Brennan, Clark과 Shaver(1998)는 성인애착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두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불안애착 차원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관계에 버림받거나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를 말한다. 회피애착 차원은 타인과 친밀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정도를 말한다.

애착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인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게 된다(Bowlby, 1982; Bretherton & Munholland, 1999). 즉,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혹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표상과 타인이 필요할 때 옆에 있고 반응적이며 신뢰할 만한 존재인지 혹은 냉담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존재인지에 대한 타인 표상을 갖게 된다. 유아기에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은 성인기의 내적 작동 모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성장 발달하면서 이성 관계를 포함한 성인기 애착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되거나 수정되기도 한다(Fraley & Shaver, 2000; Hazan & Shaver, 1987; Hazan & Zeifman, 1999). 다시 말하면,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에서 애착과 관련된 정서, 요구 및 두려움 등을 나누고 친밀감을 증진시킴으로써, 내적 작동모델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Johnson, 2006).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관계 만족도는 낭만적 관계에서 근접성, 안전 피난처 및 안정 기지의 역할을 주고받을 때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Feeney, 1999; Mikulincer & Shaver, 2007). 즉, 서로 가까이 있고 친밀함을

나누며, 서로에게 안락함과 지지를 제공하고,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줄 때, 낭만적 관계에서 관계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미혼 남녀의 이성 관계 만족도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이는 남녀 모두에게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김광은, 이위갑, 2005; 백상은, 설경옥, 2015; Fournier, Brassard, & Shaver, 2011; Mikulincer & Shaver, 2007; Riggs, Cusinamo, & Benson, 2011). 친밀한 관계에 거부당하고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나 친밀해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정도가 높다면, 관계의 불안정한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에 더 집중하게 되고, 관계 만족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커플 관계는 상호 호혜적이므로,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은 자신의 관계 만족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계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Mikulincer & Shaver, 2007). 즉,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할 것으로 생각하거나 친밀해 지는 것을 불편해 할 때, 자기 자신의 관계 만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계 만족도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Mikulincer와 Shaver(2007)는 부부와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망라하여, 상대방의 불안애착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모두에게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Riggs 등(2011)은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의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이 모두 관계 만족도와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었으며, 성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미혼 커플 내에서 남자의 불안애착과 여자의 관계만족도 간의

부적 관계(백상은, 설경옥, 2015; Carnelley, Pietromonaco, & Jaffe, 1996; Frazier, Byer, Fischer, Wright, & DeBord, 1996; Jones & Cuningham, 1996), 남자의 회피애착과 여자의 관계만족도 간의 부적 관계(백상은, 설경옥, 2015; Carnelley et al., 1996; Collins & Read, 1990; Jones & Cuningham, 1996), 여자의 불안애착과 남자의 관계 만족도 간에 부적 관계(백상은 설경옥, 2015; 최바울 등, 2013; Carnelley et al., 1994, 1996; Collins & Read, 1990)가 일관적으로 보고되었다. 여자의 회피애착과 남자의 관계 만족도 간의 유의한 부적 관련성도 제한된 연구에서만 보고되었다(최바울 등, 2013). 불안애착이 높은 파트너가 거절이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관련된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파트너의 내적 과정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 매달린다는가 하는 반응은 상대적으로 쉽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부정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Johnson, 2006). 회피애착이 높은 파트너는 관계에 대해 불편해 하고 거리를 두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방과 충분히 나누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서로 연결되는 느낌을 갖기 어렵고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낮아질 수 있다(Johnson, 2006). 이와 같이, 성인애착과 관계만족도의 간의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의사소통은 이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은 언어적 대화와 비언어적 행동을 포함하여,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Johnson, 2006; Pietromonaco, Greenwood, & Barrett, 2004).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타협하는 기능적 의사결정을 할

때는 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갈등과 문제가 있는 의사소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이해와 해석을 포함하므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 전달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Warzlwick, Beavin, & Jackson, 1969). 이처럼 의사소통은 기능적일 수도 있고 역기능적일 수도 있는데, 커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것과 함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파악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Noller & Feeney, 2002).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Gottman은 의사소통 악화요인(Gottman & Levinson, 1988; Gottman & Krocoff, 1989; Gottman & Silver, 2002)을 제안하였다. Gottman 등에 따르면, 의사소통 악화요인은 낭만적 관계에서 갈등이나 부정적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의 네 가지 양식을 포함한다. 비난은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것이다. 경멸은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보는 태도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포함한다. 방어는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변명이나 핑계를 대는 것으로, 결국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냉담은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고 무시하면서 무감각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양식은 애착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성인애착의 영향을 받는다(Johnson, 2006; Pietromonaco, Greenwood, & Barrett, 2004).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자신의 애착 관련 약점은 드러내지 않고 불평하거나, 혹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애착 관련 욕구와 소망을 드러내지 않고 위축되어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Johnson, 2006).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에 민감하지 못하고 부정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Anders & Tucker, 2000; Kobak & Hazan, 1991; Mikulincer & Shaver, 2007). 구체적으로, 불안 애착이 높은 사람은 불안 애착이 낮은 사람에 비해, 언어적, 비언어적 스트레스 신호를 많이 보이고(Guerrero, 1996), 일상생활에서 갈등을 더 많이 지각하고, 갈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Campbell, Simpson, Boldry, & Kashy, 2005), 파트너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보인다(김광은, 2005; Simpson, Rholes, & Philips, 1996). 한편,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이는 부정적 의사소통으로 이어진다(Anders & Tucker, 2000; Kobak & Hazan, 1991; Mikulincer & Shaver, 2007). 구체적으로,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회피애착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따뜻하거나 지지적인 태도를 덜 보이고(Simpson, et al., 1996), 대화에 흥미를 보이지 않으며(Guerrero, 1996), 문제를 무시하고 관계를 떠나겠다는 위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isenbaum & Lopez, 2015). 성인애착과 Gottman의 의사소통 악화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Fowler와 Dillow(2011)는 170명의 성인(72%는 미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제 및 결혼 기간과 관계 만족도를 통제한 후,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이 의사소통 악화요인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남녀의 자료를 합하여 분석하였는데, 불안애

착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유의미하게 설명했고, 회피애착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부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의사소통이 건설적일 때,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 감정 및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증대될 수 있다. 또한, 건설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친밀감이 증대되고 신뢰가 쌓이면서, 의사소통은 관계 만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Karney & Bradbury, 1995; Noller, & Feeney, 2002).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Gottman의 의사소통 악화 요인은 결혼 만족도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송진경, 채규만, 2008; 홍순건, 채규만, 2010). 송진경과 채규만의 연구(2008)에서 의사소통 악화요인은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 의미 공유하기, 배우자의 영향력 수용하기 등을 함께 고려할 때에도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부부를 대상으로 한 강해순의 연구(2011)에서는,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은 자신의 관계 만족도와 부적상관이 있었다. Gottman의 의사소통 악화요인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다른 연구에서도 비난 및 회피 의사소통은 관계 만족도와 부적 상관이 보고되었다(박영화, 고재홍, 2005; 이정은, 이영호, 2000). Kim, Capaldi와 Crosby(2007)는 동거 중이거나 결혼한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부 모두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우를 높은 관계 만족도라고 하고, 한 쪽이라도 낮은 관계 만족도를 보이는 경우를 낮은 관계 만족도라고 했을 때, 경멸과 방어를 포함하는 높은 강도의 부정적 정서는 관계만족도와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커플관계에서 한 사람의 의사소통 양식이 다른 사람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대방의 의사소통이 건설적일 때, 상대방의 욕구나 감정이나 생각을 알게 되고, 이를 수용하거나 혹은 타협함으로써, 자신과 상대방에게 모두 유익한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친밀감이 증대되며, 관계 만족이 증가될 수 있다. 강혜순(2011)은 Gottman의 의사소통 악화요인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남편의 의사소통 악화요인과 아내의 결혼 만족도는 큰 크기의 부적 상관이 있었고, 아내의 의사소통 악화요인도 남편의 결혼 만족도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의사소통 악화요인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부부를 연구한 이종선과 권정혜(2002)는 요구적 의사소통, 철수적 의사소통 및 상호 회피적 의사소통 모두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지각한 결혼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성인애착과 관계 만족, 성인애착과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과 관계 만족 간의 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종합적으로, 성인애착은 의사소통을 매개하여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사람은 친밀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욕구, 감정 및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것을 수용하며, 관계에서 친밀감을 포함한 욕구가 충족되며, 이를 통해서 커플의 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된 사람은, 상대방에게 거리를 두거나 거절의 단서에 민감하여,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이 되고 악화되며, 관계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Johnson

(2006)은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사람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고, 언어적 공격이나 거부적 표현을 적게 하며, 지지하는 표현을 많이 하고, 균형적으로 자기주장을 하기 때문에 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바람직한 반응을 얻지 못한다고 지각하면, 관계에 불화가 생기게 되고 관계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애착이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이론적으로도 관련성이 시사되고 또 임상적 장면에서도 사용되고 있지만, 성인애착이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경험적 연구는 제한적이다. 또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결속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미혼 커플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에서 자기 효과는 자기 변인이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를, 상대방 효과는 상대방 변인이 자기에게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가설 1.** 성인애착과 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A-B 커플에서 A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A의 관계 만족도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기 효과), B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A의 관계 만족도와도 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상대방 효과).

**가설 2.** 성인애착은 역기능적 의사소통과의 관계에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있을 것

이다. 다시 말하면, A가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A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자기 효과). 이에 더하여, B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A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상대방 효과).

**가설 3.**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A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A의 관계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자기 효과). 또한, B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A의 관계 만족도도 낮을 것이다(상대방 효과).

**가설 4.**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성인애착과 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며, 매개효과에서는 자기 효과, 상대방 효과 및 혼합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A의 불안 애착 및 회피애착은 A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A의 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이다(자기 효과:  $A \rightarrow A \rightarrow A$ ). B의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은 A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B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각각 매개로 A의 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상대방 효과:  $B \rightarrow A \rightarrow A$ ;  $B \rightarrow B \rightarrow A$ ). 마지막으로, A의 불안 애착 및 회피애착은 B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A의 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혼합 효과:  $A \rightarrow B \rightarrow A$ ).

## 방법

###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서 227쌍의 이성 커플을 대상으로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에서, 커플 중 한 사람만 설문에 응한 24쌍, 설문 조사원을 포함하는 4쌍, 불성실하게 응답한 1쌍, 미성년자 2쌍을 포함한 31쌍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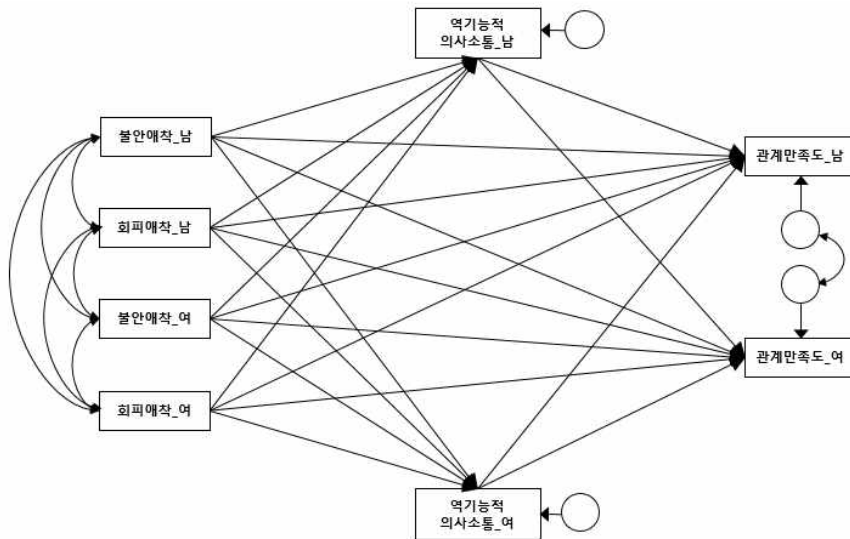


그림 1. 성인애착과 관계만족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주. 그림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두 개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포함됨.

료를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Mahalanobis 거리를 이용하여(Tabachnick & Fidell, 2007), 두 쌍의 극단치를 확인하였고( $\chi^2(8) = 26.13, p = .001$ ), 이들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194쌍의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의 나이의 범위는 만 18세에서 45세로 평균이 26.59세(표준편차 = 4.59)였으며, 여자의 나이의 범위는 만 18세에서 39세로 평균 24.99세(표준편차 = 4.10)였고, 남자의 나이에서 여자의 나이를 뺀 나이차는 -4세에서 11세까지로 평균 1.6세(2.40세)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10대가 9명(4.6%), 20대가 138명(71.1%), 30대가 45명(23.2%), 40대가 2명(1.0%)이었으며, 여자는 10대가 12명(6.2%), 20대가 152명(78.4%), 30대가 30명(15.5%)이었다. 남녀가 보고한 교제 개월 수를 평균한 값을 교제기간으로 산출하였는데, 교제 기간은 1개월 미만에서 13년 2개월로 평균 20.90개월(표준편차 = 24.10)이었다.<sup>1)</sup> 교제기간을 범주화하였을 때, 3개월 이하는 32쌍(16.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19쌍(9.8%), 6개월 초과 1년 이하는 36쌍(18.6%), 1년 초과 2년 이하는 58쌍(29.9%), 2년 초과 4년 이하는 18쌍(9.3%), 3년 초과 커플은 31쌍(16.0%)이었다. 학력별로, 남자는 고졸이 12명(6.2%), 대학생이 66명(34.0%), 대졸이 105명(54.1%), 대학원 이상이 11명(5.7%)이었고, 여자는 고졸이 13명(6.7%), 대학생이 59명(30.4%), 대졸이 95명(49.0%), 대

학원 이상이 27명(13.9%)이었다. 직업별로 남자는 직장인이 102명(52.6%), 대학(원)생이 70명(36.1%), 기타가 13(6.7%), 무직이 7명(3.6%), 무응답이 2명(1%)이었고, 여자는 직장인이 93명(47.9%), 대학(원)생이 70명(36.1%), 기타가 21명(10.8%), 무직이 10명(5.2%)이었다.

#### 측정도구

##### 친밀관계 경험척도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Brennan 등(1998)이 개발하고 Fraley, Waller과 Brennan(2000)이 개정한 것을 김성현(2004)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친밀관계 경험척도(Experiences of Close Relationship Scale-Revised)를 사용했다. 김성현은 'partner'를 '사람들'로 번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시 '파트너'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친밀관계 경험척도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2가지 하위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애착은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며(예를 들면, '파트너로부터 버림받을까봐 걱정한다'). 회피애착은 친밀해지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꺼리는 것을 말한다(예를 들면, '나는 파트너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피하려 한다'). 각 문항은 Likert 식 7점 척도로,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항상 그렇다)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정도가 높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점수가 낮을수록 안정적으로 애착되었다고 본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불안애착이 .89, 회피애착이 .85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불안애착이

1) 연구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행연구에서는 교제 기간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모든 교제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등)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한 최바울 등(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 대상의 선정에서 교제기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86, 회피애착이 .89였다.

### 이성관계 만족척도

이성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nyder (1979)가 개발한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를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하고, 이복동(2000)이 미혼 커플의 이성관계 만족도를 측정하도록 수정, 보완한 이성관계 만족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성관계 만족도 검사는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총 12개의 하위척도 중, 미혼 남녀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하위 요인 4가지 하위요인인 전반적인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해결 의사소통, 공유시간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불만족 하위요인 16문항만을 사용하여(예를 들면, '내 파트너는 내 기분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전반적인 이성관계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성관계 만족도 검사는 Likert식 7점 척도로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항상 그렇다)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전반적 불만족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는 .90였고, 본 연구에서도 .90이었다.

###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척도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서 권윤아와 김득성(2008)이 개발한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척도를 미혼성인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척도는 비난, 경멸, 방어, 냉담의 4가지 하위척도를 포함하며, 비난, 경멸, 방어가 각각 5문항, 냉담이 4문항으로, 총 1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지시문이나 문항 내용 중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 파트너

로 변경하였으며, '이혼 별거하자고 위협한다'는 '헤어지자고 위협을 한다'로, 'TV 음량 높이기, 획 돌아눕기'와 같은 예시는 미혼커플에게 맞게 '딴 곳을 보기, 딴청 피우기'로 수정하였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척도는 갈등 발생 시 각 문항에 해당하는 행동을 상대 파트너에게 했는지를 Likert식 5점 척도로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하위척도의 평균 점수를 평균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윤아와 김득성(2008)의 연구에서 내적신뢰도(Cronbach's  $\alpha$ )는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이 각각 .85, .84, .85, .8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내적신뢰도(Cronbach's  $\alpha$ )는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이 .84, .80, .83, 및 .84이었고, 전체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내적 신뢰도는 .91이었다.

### 자료수집 절차

설문 조사 자료는 2015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한 달간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자 주위의 20명을 자료 조사원으로 섭외하였고, 자료 조사원들은 그들 주위의 3쌍에서 30쌍의 커플에게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자는 조사 대상 커플에게 커플 인식을 위해 동일한 코드번호가 부여된 두 개의 설문지, 설문동의서, 보상물인 커플수첩 2개를 포함하는 봉투를 주었다. 또한, 설문 참가자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설문 조사 시 주의 사항 및 비밀보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장거리로 인하여 설문지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커플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설문을 진행하였다(<https://ko.surveymonkey.com>). 설문에는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자료뿐만 아니라, 이성관계와 관련된 다른 설문도 포함되어 있었고, 수집된 자료 중 위의 연구대상과 측정도구에서 기술한 자료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sup>2)</sup>

### 자료분석

분포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8개의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교제기간과 나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제기간과 주요 변인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가설 1에서 가설 4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Kenny, Kashy, & Cook, 2006)을 사용하였다.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은 커플을 하나의 단위로 두고 분석하므로, 남자와 여자의 자료를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분석했을 때 생기는 1종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즉, 남자와 여자의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석했을 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와 여자의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했을 때에는 이들 간의 상관이 고려되어, 그 관련성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기-상대방 의존 모형에서는 자기 변인이 자신에게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변인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Kenny 등(2006)은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법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본 연구와 같이 쌍자료에서 남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하며, 독립 변인 간의 상관 및 종속 변인의 잔차 간의 상관을 포함한 전체 모델을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에서 제시되어 있고, AMOS 18.0(Arbuckle, 200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자료를 하나의 모델 안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의 자료를 통합하여 각 변인의 값을 표준화 한 후에, 다시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사용하였다(Kenny 등, 2006). 자료가 이미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형의 회귀계수는 표준화 값이 아닌 비표준화 값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적합도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은 포화 모형으로, 자유도가 1이고, 모형 적합도가 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Kenny et al., 2006). 다음으로 가설 4에서 제시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는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여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전체 매개효과가 아닌 이들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바를 따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예언변인과 매개변인 간의 경로와 매개변인과 준거변인 간의 경로가 유의미한 경우에만 매개효과를 산출하였다.

## 결 과

### 사전분석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2)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일부는 조영주(2017)에서도 사용되었음.

왜도와 침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왜도의 절대값의 범위는 .12에서 .46(표준오차 = .18)였고, 침도의 절대값의 범위는 .12에서 .67(표준오차 = .35)이었다. 왜도는 2이하, 침도는 7이하로 표본의 분포의 정상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Finch, & Curran, 1995). 교체기간은 평균이 20.90개월(표준편차=24.10), 왜도와 침도가 각각 3.27(표준오차 = .18)과 14.37(표준오차 = .35)이었다. 표본의 정상성을 위하여, 교체기간을 제곱근 변환하였고, 변환된 교체기간의 왜도와 침도는 각각 1.17과 2.57이었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변환된 교체기간 값을 사용하였다. 교체 기간은 남자의 회피애착, 여자의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과 유의

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r=-.20, p<.01; r=-.17, p<.05; r=-.28, p<.001$ ), 남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도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r=.20, p<.01; r=.19, p<.01$ ), 이후의 분석에서 교체기간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남자와 여자의 나이 모두 여자의 불안애착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r=-.21, p<.01; r=-.20, p<.01$ ), 교체기간을 고려했을 때에는 나이가 불안애착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는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자의 불안애착은 남자와 여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남자의 관계 만족도와 상관이 있었다( $ps<.05$ ). 남자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인 간 상관분석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1. 불안애착_남   | -    |      |      |      |      |      |      |      |      |       |       |
| 2. 회피애착_남   | .28  | -    |      |      |      |      |      |      |      |       |       |
| 3. 역.의사소통_남 | .30  | .22  | -    |      |      |      |      |      |      |       |       |
| 4. 관계만족도_남  | -.46 | -.59 | -.54 | -    |      |      |      |      |      |       |       |
| 5. 불안애착_여   | .13  | .24  | .29  | -.28 | -    |      |      |      |      |       |       |
| 6. 회피애착_여   | .15  | .23  | -.08 | -.15 | .19  | -    |      |      |      |       |       |
| 7. 역.의사소통_여 | .17  | .08  | .34  | -.37 | .39  | .11  |      |      |      |       |       |
| 8. 관계만족도_여  | -.26 | -.29 | -.39 | .49  | -.47 | -.43 | -.51 | -    |      |       |       |
| 9. 교체기간     | -.04 | -.20 | .20  | -.05 | -.17 | -.28 | .19  | -.05 | -    |       |       |
| 10. 나이_남    | -.13 | .09  | .00  | .03  | -.21 | .01  | -.09 | .00  | .28  | -     |       |
| 11. 나이_여    | -.09 | .07  | .01  | .03  | -.20 | .04  | -.10 | .01  | .24  | .85   | -     |
| 평균          | 3.27 | 2.48 | 1.91 | 3.86 | 3.51 | 2.54 | 2.18 | 3.71 | 4.05 | 26.59 | 24.99 |
| 표준편차        | .88  | .74  | .63  | .57  | .95  | .80  | .64  | .64  | 2.15 | 24.99 | 4.10  |
| 왜도          | .17  | .32  | .43  | -.23 | .28  | .46  | .12  | -.29 | 1.17 | .79   | .65   |
| 침도          | .22  | -.26 | -.33 | -.54 | -.12 | -.37 | -.67 | -.43 | 2.57 | 1.24  | .21   |

주.  $N = 194$ . 상관계수 절대값 .15 이상은  $p<.05$ , .19 이상은  $p<.01$ , .26 이상은  $p<.001$ . 역.의사소통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말함

의 회피애착은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남자의 관계 만족도 및 여자의 관계 만족도와는 상관이 있었으나( $p < .05$ ), 여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 = .08, p > .05$ ). 여자의 불안애착은 남자와 여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관계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p < .05$ ). 여자의 회피애착은 여자와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고( $r = .11, p > .05$ ;  $r = -.08, p > .05$ ), 여자와 남자의 관계 만족과는 관련이 있었다( $p < .05$ ).

주요분석

가설검증에서 교제기간을 통제하기 위해 그림 1에 제시한 연구 모형에 교제기간과 애착과의 상관 및 애착이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관

계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를 포함하였고, 이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의 회귀계수와 유의도 산출하여 표 2에 제시하였고, 그림 2에서는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표 2에서 회귀 계수는 남자의 자기 효과, 여자의 자기 효과, 남자의 변인이 여자에게 미치는 상대방 효과와 여자의 변인이 남자에게 미치는 상대방 효과 순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남자의 자기 효과를 살펴보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자신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였고( $B = .25, p < .001$ ;  $B = .17, p < .05$ ), 남자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남자 자신의 관계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도 각각 유의하였고( $B = -.21, p < .001$ ;  $B = -.44, p < .001$ ),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남자의 관계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도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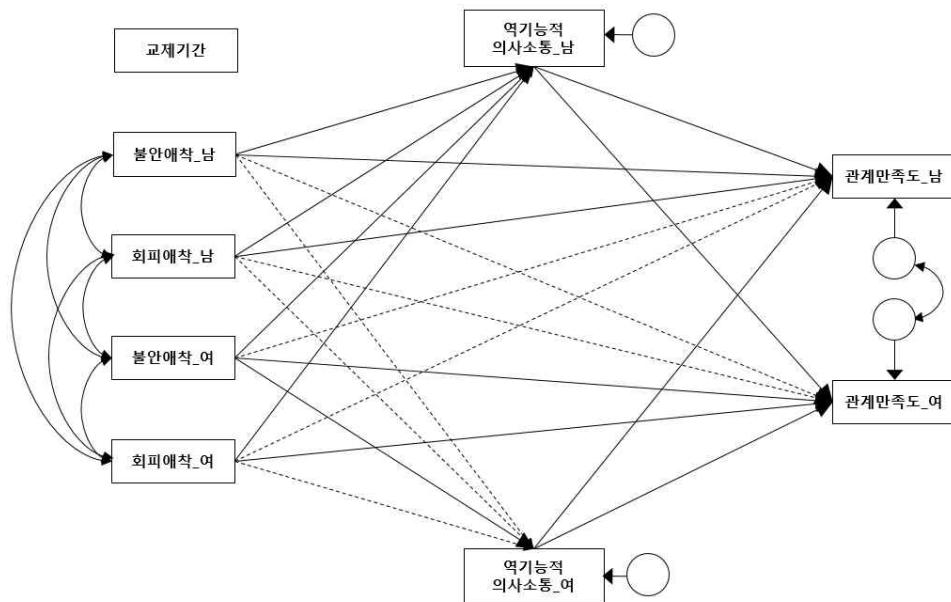


그림 2. 성인애착,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관계 만족도의 관계

주. 그림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두 개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잔차들 간에 상관, 교제기간과 성인애착 간의 상관, 교제기간이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관계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가 포함됨.

표 2. 모형에서 회귀계수

| 예언변인          | 준거변인          | 비표준화계수           | 표준오차 |
|---------------|---------------|------------------|------|
| 자기 효과: 남자     |               |                  |      |
| 불안애착_남        |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 | .25***           | .07  |
| 회피애착_남        |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 | .17*             | .07  |
| 불안애착_남        | → 관계 만족도_남    | -.21***          | .05  |
| 회피애착_남        | → 관계 만족도_남    | -.44***          | .05  |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   | → 관계 만족도_남    | -.29***          | .05  |
| 자기 효과: 여자     |               |                  |      |
| 불안애착_여        | → 역기능적 의사소통_여 | .39***           | .06  |
| 회피애착_여        | → 역기능적 의사소통_여 | .09              | .06  |
| 불안애착_여        | → 관계 만족도_여    | -.22***          | .05  |
| 회피애착_여        | → 관계 만족도_여    | -.39***          | .07  |
| 역기능적 의사소통_여   | → 관계 만족도_여    | -.29***          | .06  |
| 상대방 효과: 남 → 여 |               |                  |      |
| 불안애착_남        | → 역기능적 의사소통_여 | .12 ( $p=.09$ )  | .07  |
| 회피애착_남        | → 역기능적 의사소통_여 | -.02 ( $p=.79$ ) | .07  |
| 불안애착_남        | → 관계 만족도_여    | -.05 ( $p=.39$ ) | .06  |
| 회피애착_남        | → 관계 만족도_여    | -.10 ( $p=.11$ ) | .06  |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   | → 관계 만족도_여    | -.22***          | .06  |
| 상대방 효과: 여 → 남 |               |                  |      |
| 불안애착_여        |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 | .27***           | .06  |
| 회피애착_여        |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 | -.13*            | .06  |
| 불안애착_여        | → 관계 만족도_남    | .012 ( $p=.80$ ) | .05  |
| 회피애착_여        | → 관계 만족도_남    | -.04 ( $p=.41$ ) | .05  |
| 역기능적 의사소통_여   | → 관계 만족도_남    | -.18***          | .05  |

주.  $N = 194$ . \* $p < .05$ , \*\* $p < .01$ , \*\*\* $p < .001$ .

( $B = -.29$ ,  $p < .001$ ). 여자의 자기 효과도 남자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불안애착이 자신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였고 ( $B = .39$ ,  $p < .001$ ),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이 자신의 관계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였으며 ( $B = -.22$ ,  $p < .001$ ;  $B = -.39$ ,  $p < .001$ ), 여자의 역

기능적 의사소통이 여자의 관계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도 유의하였다 ( $B = -.29$ ,  $p < .001$ ). 그러나, 남자와는 달리, 여자의 회피애착이 자기 자신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 $B = .09$ ,  $p > .05$ ).

상대방 효과를 살펴보면, 남자의 불안애착

과 회피애착이 여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여자의 관계 만족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p_s > .05$ ),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여자의 관계 만족에 이르는 경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22, p < .001$ ). 여자의 불안애착이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B = .27, p < .001$ ), 여자의 회피애착이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 = -.13, p < .05$ ), 여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남자의 관계 만족에 이르는 경로는 부적적으로 유의하였다( $B = -.18, p < .001$ ). 여자의 회피애착과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간의 관계는 단순 상관에서는 부적 방향성이기는 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는데( $r = -.08, p > .05$ ), 남자와 여자의 불안애

착과 회피애착을 모두 고려했을 때에는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억제효과(suppression)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Cohen et al., 2002), 여자의 회피애착이 다른 성인 애착과의 정적 상관을 통하여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회피애착의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고유효과는 단순 상관에 비해서 그 크기가 더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유의한 경로를 중심으로, 성인애착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와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자기 효과에서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남자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기 자신의 관계 만족

표 3. 의사소통의 간접효과 크기 및 효과 검증(Sobel's z)

| 예언변인                | 매개변인          | 준거변인       | 간접효과 | sobel's z |
|---------------------|---------------|------------|------|-----------|
| 자기 효과: 남자           |               |            |      |           |
| 불안애착_남              |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 | → 관계 만족도_남 | -.07 | -3.12**   |
| 회피애착_남              |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 | → 관계 만족도_남 | -.05 | -2.27**   |
| 자기 효과: 여자           |               |            |      |           |
| 불안애착_여              | → 역기능적 의사소통_여 | → 관계 만족도_여 | -.11 | -3.77***  |
| 상대방 효과: 남자 → 여자     |               |            |      |           |
| 불안애착_남              |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 | → 관계 만족도_여 | -.06 | -2.54**   |
| 회피애착_남              |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 | → 관계 만족도_여 | -.04 | -2.02**   |
| 상대방 효과: 여자 → 남자     |               |            |      |           |
| 불안애착_여              | → 역기능적 의사소통_여 | → 관계 만족도_남 | -.07 | -3.01**   |
| 불안애착_여              |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 | → 관계 만족도_남 | -.08 | -3.45**   |
| 회피애착_여              |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 | → 관계 만족도_남 | .06  | 2.97**    |
| 혼합 효과: 여자 → 남자 → 여자 |               |            |      |           |
| 불안애착_여              |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 | → 관계 만족도_여 | -.06 | -2.71**   |
| 회피애착_여              | → 역기능적 의사소통_남 | → 관계 만족도_여 | .05  | 2.46*     |

주. N = 194. \* $p < .05$ , \*\* $p < .01$ , \*\*\* $p < .001$ .

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자 자신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07,  $z=-3.12$ ,  $p<.01$ ; 간접효과=-.05,  $z=-2.27$ ,  $p<.01$ ). 여자의 불안애착이 자신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자 자신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간접효과=-.11,  $z=-3.77$ ,  $p<.001$ ).

상대방 효과에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남자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여자 파트너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간접효과=-.06,  $z=-2.54$ ,  $p<.01$ ; 간접효과=-.04,  $z=-2.02$ ,  $p<.01$ ). 여자의 불안애착이 남자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여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모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07,  $z=-3.01$ ,  $p<.01$ ; 간접효과=-.08,  $z=-3.45$ ,  $p<.01$ ). 이에 더하여, 여자의 회피애착도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남자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는데(간접효과=.06,

$z=2.97$ ,  $p<.01$ ), 여자의 회피애착은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낮춤으로써, 남자의 관계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다시 여자 자신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혼합효과도 나타났다(간접효과=-.06,  $z=-2.71$ ,  $p<.01$ ; 간접효과=.05,  $z=2.46$ ,  $p<.01$ ). 여자의 불안애착은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높임으로써 여자의 관계 만족도를 낮추는 반면, 여자의 회피애착은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낮춤으로써 여자의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는 성인애착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전체효과, 직접효과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한 간접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여자의 회피애착이 남자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B=.02$ ,  $p>.05$ ),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표 4. 성인애착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 직접효과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한 간접효과

| 예언변인   |   | 준거변인     | 전체효과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
| 불안애착_남 | → | 관계 만족도_남 | -.30***          | -.21*** | -.09  |
| 회피애착_남 | → | 관계 만족도_남 | -.49***          | -.44*** | -.05  |
| 불안애착_여 | → | 관계 만족도_여 | -.39***          | -.22*** | -.17  |
| 회피애착_여 | → | 관계 만족도_여 | -.39***          | -.39*** | .00   |
| 불안애착_남 | → | 관계 만족도_여 | -.14*            | -.05    | -.09  |
| 회피애착_남 | → | 관계 만족도_여 | -.13*            | -.10    | -.03  |
| 불안애착_여 | → | 관계 만족도_남 | -.13**           | .02     | -.15  |
| 회피애착_여 | → | 관계 만족도_남 | -.02 ( $p=.74$ ) | -.04    | .02   |

주.  $N = 194$ . \* $p<.05$ , \*\* $p<.01$ , \*\*\* $p<.001$ . † 간접효과는 예언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여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각각 매개한 간접효과를 합한 값으로 유의도가 산출되지 않았음.

다. 남자의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이 남자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간접효과는 각각 30%와 10.2%였고, 여자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여자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간접효과는 각각 43.6%와 0%였다. 남자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여자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간접효과는 각각 64.3%와 23.1%였다. 여자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일치하지 않는 억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효과는 두 개의 절대값의 합으로 볼 수 있고(MacKinnon, 2008), 여자의 불안애착이 남자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간접효과는 88.2%라고 할 수 있다.

사후분석

주요 분석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전체 점수를 살펴보았는데, 사후 분석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인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의 관계 만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교제기간을 통제한 후, 애착은 남자의 관계 만족도를 49% 설명하였고( $F(4,188)=44.75, p<.001$ ),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추가적으로 남자의 관계 만족도를 15% 설명하였다( $F(8,180)=9.25, p<.001$ ). 역기능적 의사소통 중에서 남자의 비난과 남자의 경멸 의사소통의 남자의 관계 만족도에 대한 고유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3.49, p<.01; t=-3.78, p<.001$ ). 마찬가지로, 교제기간과 애착을 통제한 후, 역기능적 의사소통

표 5. 관계만족도에 대한 성인애착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회귀분석

| 단계  | 예측변인   | 종속변인: 관계 만족도_남 |                     |         |          | 종속변인: 관계 만족도_여 |                     |         |          |
|-----|--------|----------------|---------------------|---------|----------|----------------|---------------------|---------|----------|
|     |        | $\Delta R^2$   | $\Delta F^2(df)$    | $\beta$ | $t$      | $\Delta R^2$   | $\Delta F^2(df)$    | $\beta$ | $t$      |
| 단계1 | 교제기간   | .00            | .52                 | -.08    | -1.54    | .00            | .59                 | -.12    | -2.19*   |
| 단계2 | 불안애착_남 | .49            | 44.75***<br>(4,188) | -.19    | -3.79*** | .43            | 34.98***<br>(4,188) | -.08    | -1.35    |
|     | 회피애착_남 |                |                     | -.48    | -9.08*** |                |                     | -.60    | -1.02    |
|     | 불안애착_여 |                |                     | -.01    | -.23     |                |                     | -.18    | -2.93**  |
|     | 회피애착_여 |                |                     | -.08    | -1.66    |                |                     | -.40    | -7.23*** |
| 단계3 | 비난_남   | .15            | 9.25***<br>(8,180)  | -.23    | -3.49**  | .13            | 6.70***<br>(8,180)  | -.03    | -.47     |
|     | 경멸_남   |                |                     | -.25    | -3.78*** |                |                     | -.17    | -2.34*   |
|     | 방어_남   |                |                     | .08     | 1.20     |                |                     | .05     | .68      |
|     | 냉담_남   |                |                     | .01     | .22      |                |                     | -.10    | -1.42    |
|     | 비난_여   |                |                     | -.09    | -1.30    |                |                     | -.24    | -3.11**  |
|     | 경멸_여   |                |                     | -.06    | -.84     |                |                     | -.15    | -1.99*   |
|     | 방어_여   |                |                     | .03     | .50      |                |                     | .07     | 1.00     |
|     | 냉담_여   |                |                     | -.10    | -1.87    |                |                     | -.05    | -.75     |

주.  $N = 194$ . \* $p<.05$ , \*\* $p<.01$ , \*\*\* $p<.001$ .  $\beta$ 와  $t$ 값은 단계3까지 포함한 마지막 모형에서의 값임.



은 여자의 관계 만족도를 13% 설명하였다 ( $F(8,180)=6.70, p<.001$ ). 역기능적 의사소통 중, 남자의 경멸 의사소통, 여자의 비난 및 경멸 의사소통의 여자의 관계 만족도에 대한 고유 효과가 유의하였다( $t=-2.34, p<.05; t=-3.11, p<.01; t=-1.99, p<.05$ ).

## 논 의

본 연구는 커플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성인애착이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관계를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가설 1에서는 자신과 상대방의 성인애착이 관계 만족도를 설명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여자의 회피애착이 남자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가설 1을 지지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녀 모두 거절이나 거부에 대한 불안감이 클수록, 또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클수록 낮은 수준의 관계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Mikulincer와 Shaver(2007)의 보고와 일치한다. 남녀 모두 거절이나 거부에 대해 민감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 할 때, 이성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즉, 불안애착이 높을 때, 상대방과 연결되고 친밀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힘들고 필요할 때 위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 만족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방 효과와 관련하여, 남자와 여자 모두 상대방이 거절이나 거부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 때, 낮은 관계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거절

이나 거부에 민감하고 관계에 매달리는 사람은 작은 단서도 거절이나 거부의 신호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불평하기 때문에, 파트너의 관계 만족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회피애착의 경우, 남자의 회피애착은 여자의 관계 만족도와 관련이 있었으나, 여자의 회피애착은 남자의 관계 만족도와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남자가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 하고 관계에서 거리감을 둘 때, 관계 중심적인 여자는 이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 여자가 관계에 거리감을 둘 때, 상대적으로 과업 중심적인 남자는 이를 잘 지각하지 못하거나,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여자의 불안애착과 남자의 관계 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과 여자의 회피애착과 남자의 관계 만족도 간의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우리나라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한 최바울 등(2013)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그들은 여자의 높은 회피애착은 우리나라 문화에서 여자에게 기대하는 배려, 돌봄이나 상호의존성과 같은 특성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남자의 관계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자의 높은 불안애착은 여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대와 일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남자의 관계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커플의 성인애착과 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성역할 사회화나 문화적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후 연구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설 2에서는 성인애착이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그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남녀 모두 거절이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

이 클수록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애착이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을 유의미하게 설명한다고 보고한 Fowler와 Dillow(201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거절이나 거부에 대해 민감한 남녀 모두, 자신이 수용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보다는,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상대를 비난하고, 무시하며, 책임을 돌리거나 거절하는 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회피애착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 효과를 보면, 남자는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 하고 거리를 둘 때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여자는 친밀한 관계에서 거리를 둔다고 해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도 성별에 따른 사회화 과정과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여자는 사회화 과정에서 관계 위주의 경험을 많이 하고 의사소통에 익숙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 거리감을 두는 경향이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성인애착이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대방 효과를 살펴보면, 남자의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은 여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계에 익숙한 여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남자의 성인 애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여자의 불안애착은 상대방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업 중심적인 남자는 여자가 버림받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관계에 매달릴 때,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다루지 못하고, 비난, 경멸, 자기변호와 냉담의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게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Gottman과 Silver(2002)는 남녀가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여자는 타협점과 해결점을 찾는 데 능숙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과는 반대로, 여자의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애착이 높은 여자는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고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남자는 상호작용에서 덜 위협적으로 느끼고, 비난하고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2012)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그들은 회피애착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부정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와는 달리 그들의 연구에서는 회피애착만을 포함하였고, 불안애착의 효과가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가설 3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관계 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이 가설은 본 연구에서 지지되었다. 남녀 모두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과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관계 만족도를 낮게 보고하였다. 또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상대방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유의미하였다. 사후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난과 경멸은 관계 만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높았다.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을 몰아세우거나,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보는 태도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조롱할 때, 자기 자신의 관계 만족도가 낮았다. 물론,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만족도가 낮을 경우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상대방 효과와 관련하여 특히 남자의 경멸은 여자의 관계 만족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갈등 상황에 있는 커플 관계에서 여자가 종종 무시당하는 느낌을 호소하는 것보다 맥을 같이 한다. Gottman은 커플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은 부정적인 첫마디에서 시작되어, 커플이 서로를 비난하고, 경멸하고, 자기변호를 하고, 서로에게 냉담하게 되는 과정이 순환되며, 이러한 과정이 악화되고 만성화될 때, 관계가 단절된다고 된다고 하였다(김혜숙, 2008; David, 2015; Gottman & Levinson, 1988). 낮은 수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고 긍정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Gottman & Silver, 2002), 본 연구 결과는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관계를 망치치 않도록 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관계에 중요함을 보여준다.

가설 4에서는 성인애착과 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이는 불안애착과 관련해서 지지되었고, 회피애착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불안애착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회피애착과 관계 만족 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에 비해서 효과 크기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녀 모두 거절이나 거부에 대한 불안감이 클수록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관계 만족도와 상대방의 관계 만족도가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애착이 높을 때, 애착과 관련된 일차적 욕구나 감정을 감추고, 분노와 같은 이차적 감정을 드러내면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관계에 만족

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안애착은 자기 자신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불안애착이 상대방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완전 매개하였다. 파트너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과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표현되는 것을 통하여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불안애착과 마찬가지로, 남자의 회피애착은 남자의 관계 만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높임으로써 남자의 관계 만족을 낮추는 반면, 남자의 회피애착이 여자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완전 매개하였다. 남자의 높은 회피애착으로 인하여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할 때,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관계에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남자의 관계 만족과 여자의 관계 만족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자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자가 관계에 매달리거나 지나치게 가까워진다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할 때에도, 여자는 상대적으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데 보다 능숙하기 때문에, 여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남자의 성인애착과 관계 만족을 매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여자의 불안애착은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

소통을 높임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관계 만족도를 낮추었고, 예상과는 달리, 여자의 회피에 작은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낮춤으로써 여자와 남자의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과업지향적인 남자의 경우는 여자가 지나치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인 태도 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남자와 여자의 관계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여자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고 거리를 둘 때, 상대적으로 덜 관계지향적인 남자는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남자와 여자 모두 높은 수준의 관계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여자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남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다시 여자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혼합효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이 단선적이 아니라 순환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며, 커플 관계 내에서 상호작용이 보다 호혜적이며 복잡적으로 일어남을 보여준다. 즉, 커플 내에서 한 사람의 행동양식은 개인적인 요소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관계 내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나 맥락을 고려했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체계적 접근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혜숙, 2008).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직업, 학력 수준의 연구 참가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눈덩이 표집으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커플 중 한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에게도 설문지가 전달되는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헤어질 위기에 있거나 갈등 상황에 있는 커플은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설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제 기간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선정에서 교제기간을 제한하지 않았다. 애착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애착을 발달시키고 상대방을 애착 대상으로 경험하는데 2년 가량의 교제 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는데(Hazan & Zeifman, 1999), 본 연구에서는 2년 이상의 교제 기간을 가진 참가자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교제 기간이 2년 이상인 커플과 2년 이하의 커플 간에 성인애착,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기 보고에 의한 것으로 실제 의사소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응답자의 반응 특성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경향이 통제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커플의 의사소통을 포함한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이러한 자료를 함께 분석하여,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주관적 지각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사후분석에서 관계 만족도에 대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 요인인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의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기는 했으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분석이 미흡하였다. 이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성인애착,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관계만족도는 동일 시점에 측정된 것으로 성인애착이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거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관계만족도를 예측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명료화를 위해서는 종단 연구나 실험 및 관찰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성인애착이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에서 나타나는 매개효과의 차이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인애착이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인애착은 자신의 관계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반면, 상대방의 성인애착은 대체적으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인애착은 내적 표상으로 상대방이 이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 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을 사용하여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하나의 모형 안에서 분석함으로써, 역동적이고 호혜적인 커플의 상호작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한 사람의 특성이 파트너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혼합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친밀한 관계이기는 하나 부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관계 만족도,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의

의를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Gottman의 부부상담이론(김혜숙, 2008; David, 2015; Gottman & Levinson, 1988)이나 정서중심 부부치료 이론(Johnson, 2006)의 중요한 개념을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Gottman의 부부상담이론(Gottman & Levinson, 1988)은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 약화요인을 포함한 싸움의 방식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서중심 부부치료 이론(Johnson, 2006)은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상대방의 애착 욕구에 반응하며 정서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상담 실제에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은 자신과 상대방의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과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 즉 상호작용과 대체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커플 상담 장면에서, 커플의 상호작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과 관련하여 탐색하고 개념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커플이 사용하는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과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탐색하고 이러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신과 상대방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커플이 인식하도록 돕고, 이를 줄임으로써 관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강해순 (2011). 부부간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 미치는 영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윤아, 김득성 (2008).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6(6), 101-113.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김광은 (2005).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결혼 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33-247.
- 김나리 (200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 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숙 (2008).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 자기 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백상은, 설경옥 (2015). 미혼 남녀의 성인애착과 관계 만족: 주는 감사와 받는 감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351-381.
- 송진경, 채규만 (2008). Gottman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 부부의 심리적 특성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1, 96-125.
- 안혜숙, 김인옥 (2000).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연구. 이성교제와 성 행동의식 그리고 결혼관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논문집*, 22, 211-232.
- 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 (2012). 회피애착이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및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525-546.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 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 패턴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이종선, 권정혜 (2002). 부부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패턴 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13-330.
- 조성호 (2014). 최근 미혼 인구의 특성과 동향: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4-07, 14-23.
- 조영주 (2017).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프로파일 수준 및 형태 유사성이 미혼 커플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8(1), 23-44.
- 최바울, 백근영, 이은지, 김애란, 왕윤정, 서영석 (2013). 커플의 성인애착과 관계 만족: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227-250.
- 홍순건, 채규만 (2010). 한국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Gottman의 이론을 중심으로. *인간이해*, 31(2), 299-316.
- Ainsworth, M. D.,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nders, S. L., & Tucker, J. S. (2000). Adult attachment styl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Personal Relationships*, 7(4), 379-389.
- Arbuckle, J. L. (2007). *Amos 18* [Computer software]. Chicago: Smallwater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adbury, T. N., & Karney, B. R. (2004). Understanding and altering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862-879.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 Munholland, K. A., (1999). Internal working model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A construct revisited.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 89-111). New York: Guilford Press.
- Campbell, L., Simpson, J. A., Boldry, J., & Kashy, D. A. (2005). Perceptions of conflict and support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role of attachment anxie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510-531.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27-140.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6). Attachment, caregiving,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in couples: Effects of self and partner. *Personal Relationships*, 3, 257-277.
- Christensen, A., & Sullaway, M. (1984). *Communication Patterns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Christensen, A., Eldridge, K., Catta-Preta. A. B., Lim. V. R., & Samtagata. R. (2006). Cross-cultural consistency of the demand/withdraw interaction pattern in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1029-1044.
- Cohen, S., Kamarck, T., &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385-396.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David, P. (2015). Wedding the Gottman and Johnson Approaches into an Integrated Model of Couple Therapy.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23(4), 336-345.
- Erikson, E. H. (2014). 유년기와 사회. (송제훈 역). 고양: 연암서가. (원전은 1950에 출판)
- Feeney, J. A. (1999). Adult romantic attachment and couple relationship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355-377). New York: Guilford Press.

- Fournier, B., Brassard, A., & Shaver, P. R. (2011). Adult attachment and male aggression in couple relationships: The demand-withdraw communication patter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s mediat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0), 1982-2003.
- Fowler, C. & Dillow, M. R. (2011). Attachment dimensions and the four horsemen of the apocalyps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28*(1), 16-26.
- Fraley, R. C. & Shaver, P. R. (2000).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etical developments, emerging controversies, and unanswered ques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2), 132-154.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Frazier, P. A., Byer, A. L., Fischer, A. R., Wright, D., M., & Debord, K. A. (1996). Adult attachment style and partner choice: Correlational and experimental findings. *Personal Relationships, 3*, 117-136.
- Gottman, J. M., & Levinson, R. W. (1988). The social psychophysiology of marriage. In P. Noller & M. A. Fitzpatrick (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pp. 182-200). Clevedon, UK: Multilingual Mastters.
- Gottman, J. M., & Silver, N. (2002).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7 가지 원칙. (임주현 역). 서울: 문학사상. (원전은 1999에 출판)
- Gottman, J. M., & Krokoff, L. J. (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47-52.
- Guerrero, L. K. (1996). Attachment style differences in intimacy and involvement: A test of the four category model. *Communication Monographs, 63*, 269-292.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ation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azan, C., & Zeifman, D. (1999). Pair-bonds as attachment: Evaluating the evidence. In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336-354). New York: Guilford Press.
- Johnson, S. M. (2006). *The practice of emotionally focused marital therapy: Creating connections*. New York: Brunner/ Mazel.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s,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1), 3.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 New York: Guilford Press.
- Kim, H. K., Calaldi, D. M., & Crosby. L. (2007). Generalizability of Gottman and colleagues' affective process models of couples' relationship outcom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1), 55-72.
- Kirkpatrick, L. A., & Hazan, C. (1994). Attachment styles and close relationships: A four-year prospective study. *Personal*



- Relationships*, 1, 123-142.
- Kobak,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61-869.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 Nisenbaum, M. G., & Lopez, F. G. (2015).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and anger express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A dyadic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1), 63-72.
- Noller, P., & Feeney, J. A. (2002). Communication, relationship concerns, and satisfaction in early marriage. In A. L., Vangelisti, H. T. Reis, & M. A. Fitzpatrick (Eds.) *Stability and change in relationships* (pp. 129-15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etromonaco, P. R., Greenwood, D., & Barrett, L. F. (2004). Conflict in adult clos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perspective. In W. S. Rholes and J. A. Simpson (Eds.) *Adult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pp. 267-299). New York: Guilford Press.
- Riggs, S. A., Cusinato, A. M. & Benson, K. M. (2011).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attachment processes in the dyadic adjustment of dating coup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1), 126-138.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impson, J., Rholes, W., & Phillips, D. (1996). Conflict in clos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99-914.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4), 813-823.
- Swann, W. B., de la Ronde, C., & Hixon, J. G. (1994). Authenticity and positivity strivings in marriage and court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857-869.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3rd eds.). New York, NY: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 Watzlawick, P., Beavin, J., & Jackson, D. (1969). *Menschliche Kommunikation*. Stuttgart, Huber.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1차원고접수 : 2017. 04. 21.  
심사통과접수 : 2017. 06. 19.  
최종원고접수 : 2017. 06. 22.

##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Dating Couples: The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Communication

Kim, Mi Jung

Cho, Young-Ju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communication among dating couples.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194 dating heterosexual couples.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dopted for the mai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tor effects and partner effect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except for the partner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Second, the actor effects and the partner effect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dysfunctional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Third, the actor effects and the partner effects in relationships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were significant, except for the relationships between men's anxiety and women's relationship satisfaction. While the self effect of men's avoidance on men'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was positively significant, the partner effect of women's avoidance on women'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was negatively significant. Fourth, the mediating effects of own and partner'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were partially significant. Study limitations,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an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adult attachment, relationship satisfaction, dysfunctional communication, dating couples,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